전북도민 최근 11년간 행복도 전국 2위

경제적 만족감 · 사회안전 신뢰는 낮아…전북형 행복지표 개발해 정책과 연계 필요

"최근 1년간 행복하셨습니까?"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최근 1년간 행복하셨냐'는 질문에 전북도는 울산에 이어 많은 사람이 행복했다는 대답은 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전북연구원은 전북도민의 종합적인 행복점수는 울산(66.4점)에 이어 강원과 함께 65점을 받아 2위를 차지했지만 경제적인 만족감이나 사회안전에 대한 신뢰는 평범하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전북형 행복지표를 개발해 이를 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18일 한국일보는 전국 16개 시·도민의 행복도, 신뢰도, 연대감 측정을 위해 각각 '최근 1년간 행복하셨습니까'와 '휴대폰·신분증이 든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지역별 비율(%)', '경제적 문제 등 곤경에 처했을 때 가족을 포함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수의 평균값(명)에 대한 조사에 전북도는 각각 65점(2위), 43.5%(2위), 4.9명(2위)를 차지해 전체적인 행복도는 전국평균 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중 행복도 관련 지표에서는 가족관계만족도와 사회적만족도 중 주관적 만족감, 의료 및 안전 만족도 중 사회안전 부문 등에서 각각 전국 평균보다 낮은 54점(전국평균 55.2점), 28.8점(전국평균 33.3점), 5.4점(전국평균 9.5점)을 보였다. 특히 의료 및 안전 만족도 중 사회안전 만족도와, 경제적 만족도 중 계층 의식 부분에서 도는 전국 평균보다 각각 4.1점, 3.4점 낮은 5.4점, 54.5점을 나타내 전체적인 행복도에 비해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전북도민의 행복도 증진을 위해 전북형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지표 전담부서 지정을 통해 정책연계방안의 모색과 도정대표통계의 도정행복지표 전환, 행복한 지역성장이라는 전략목표를 설정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측은 "전북도민의 행복도 조사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과 정책적 신뢰도를 높이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분석에 도민 행복요인을 소득별, 연령별, 지역별 등 세분화 된 단위분석을 통한 과학적 도정운영이 반영돼야 한다"며 "우선 행복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해 행복정책의 지표별 계획수립 및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연구원은 "전북도민은 대체로 물질적 만족도는 낮지만 삶의 질 만족도가 높아 전북도민의 행복도 증진을 위해서는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문화여가생활이나 사회보장 서비스 등의 삶의 질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행복도에 대한 관심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국내적 상황과 세계적인 저성장의 지속에 의해 국가정책이 소득이나 개발중심에서 소외되었던 건강, 여가, 사회적 관계 등의 다양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 흐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영수기자

시도지사협의회, 총선공약 반영 14개 과제 제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부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9일 여·야 정당에 제20대 총선공약에 지방분권 관련한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제출하고 이를 제20회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출된 총선공약 제안사항 14개 과제는 지방자치 도입 21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권한과 재원이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 지사를 포함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중앙집권 및 지방자치의 현실태를 설명하고 국가간 경쟁에서 지방과 도시간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는 추세에 미래 성장동력은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분권과 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고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된 지방분권 관련 4대 분야 14개 과제는 자치제도 개편(6개 과제), 지방재정 확충(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3개 과제), 지방분권 개헌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치제도 개편 분야에 '자치조직권 확대', '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체제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지방재정 확충 분야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 세원 발굴' 등이 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총선공약 제안사항을 의결하고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 여·야 각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정영수기자

전북자동차기술원 도내 25개사 기업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북자동차기술원(원장 이성수)은 기업지원사업 선정기업과의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본격적인 자동차·뿌리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기술원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지원사업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25개사와 19일 기업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량소재성형산업 수요/공급 상생협력 기술지원사업'과 '친환경자동차산업 기술 및 역량강화사업' 등 두 개의 사업으로 구분돼 체결 됐으며 이를 통해 총 4억8,8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중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도내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량소재성형산업 수요/공급 상생협력 기술지원사업'에는 ㈜하나정밀, ㈜아르텍, 대승금형 등 14개사를 선정했으며, 세부사업으로 1사1특화 전문기술확보 지원과 공동형/공급사슬형 기술지원, 1사1특화 전담멘토 지원 등 사업신청 당시 기업에서 요청한 세부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도내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자동차산업 기술 및 역량강화사업'에는 휴먼컴퍼지트, 제논전장, ㈜라이코 등 11개사를 선정하고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가 파견 멘토링 지원 등의 세부사업을 지원한다.

/정영수기자

다함께 보리밟기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절기상 우수(雨水)인 19일 오후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보리밭에서 소풍나온 학생들이 생육을 촉진시키는 보리밟기를 하며 봄 기운을 느끼고 있다.

도, 대형마트-지자체 지역상권상생 간담회 개최

전북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에 입점하여 영업중인 롯데백화점과 15개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16곳의 점장들과 시·군 경제담당 부서장을 초청, 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상권 상생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해 10월 상생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첫 번째 간담회 이후 두 번째로 가진 회의에서 도는 도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 등 상생협력안을 제시하고 업체측에도 공동 노력을 당부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도에서도 무분별한 대기업 진출에 따른 소상공인의 우선적인 보호를 위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의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통해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업체의 실질적인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상생협력을 위한 첫 걸음 이후 시·군을 통해 지역에 환원한 내역을 파악한 결과 롯데마트의 경우 전통시장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1천만원 상당의 CCTV 설치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및 각종 사회복지 행사 참여에 5천만원 이상의 후원을 하였다.

/정영수 기자

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총력

송하진 도지사 청와대 · 기재부 등 관련부처 지원 요청

전북도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폴란드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9일 청와대를 비롯해 각 정당과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도정 현안 해결에 각별한 지원을 요청했다.

송 지사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부처의 본격적인 예산 편성시기와 기재부의 국제행사 승인심사 등을 앞두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 설명과 대처에 나선 것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19일 송 지사는 청와대 간담회에 참석해 대통령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새만금 남북2축 도로와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이 새만금 발전은 물론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위해 당면한 현안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지사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2023년 세계 잼버리의 새만금 유치를 위한 기재부의 국제행사 사후 승인을 포함한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재외공관, 글로벌 기업의 지원(후원)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행사 사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내년 6월 행사 개최 이전에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이 이뤄져야 하는 시급성을 설명하고, 건립비 중 국비 71억원을 2016년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송 지사는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새만금 내부개발, 전북지역 공약사업 등에 대해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2023 세계잼버리 유치와 관련해 경쟁국인 폴란드에서는 바웬사 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가차원의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오는 7월로 예정된 후보지 현지실사와 내년 8월 예정인 최종 후보지 선정 등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새만금 내부 SOC의 근간인 동서2축, 남북2축 도로의 조기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 산업협력단지의 조속한 구체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인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과 동부내륙권 국도(정읍~남원) 건설사업이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약사업 이행을 요청했다.

/정영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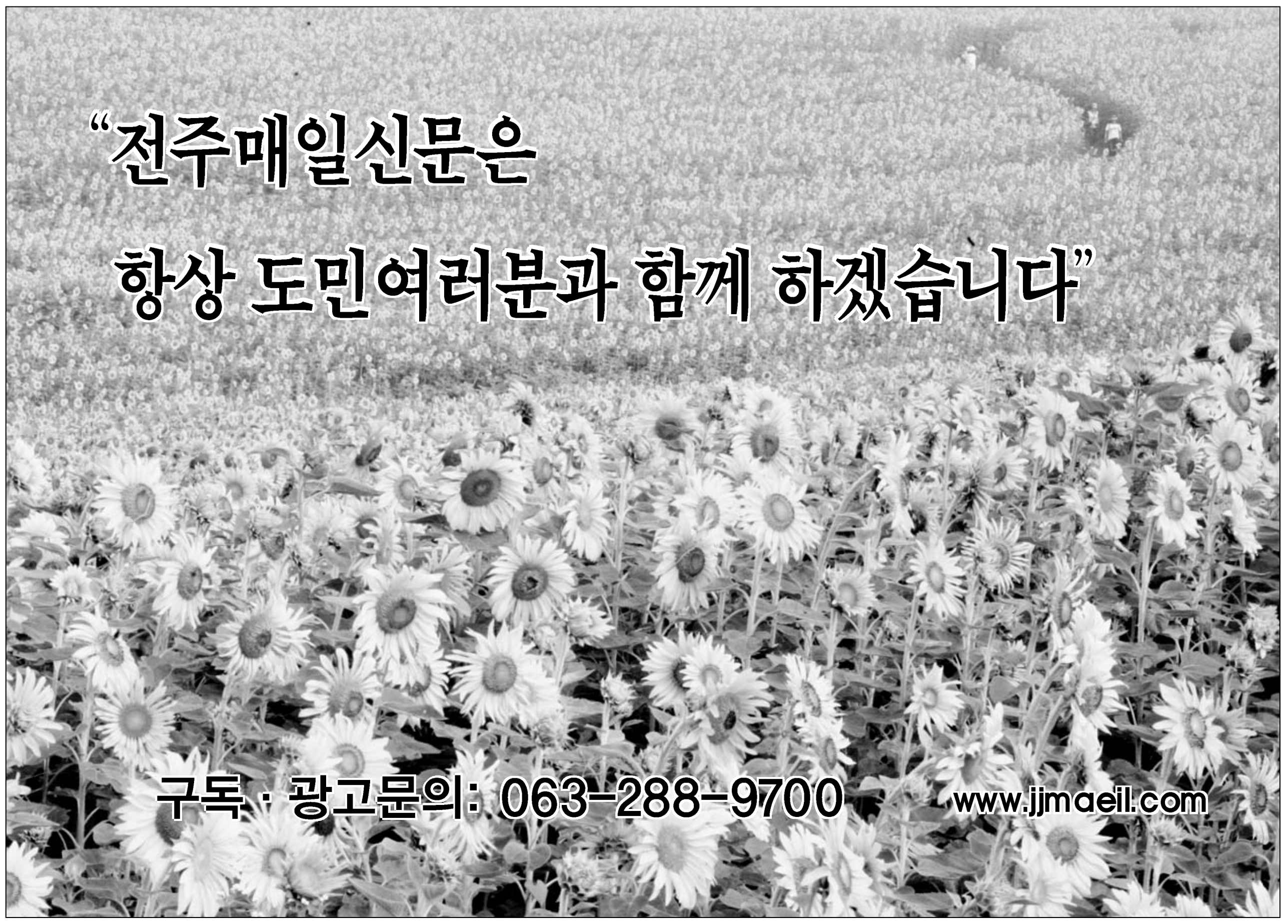
스피치 · 웅변 · 면접 · 리더쉽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의자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쉽경력 40년 강사및 스피치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과 목: ①스피치기법과 리더쉽 ②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주말반: 토요일(매주1회수업) ④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